



## 曹溪宗祖 道義國師 茶禮

불기2560. 6. 6 [음5.2]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

조계종 조계사의 기일을 맞아 도의국사의 사상을 기리는 다례제가 지난 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다례제 참석 한 사부대중은 진영에 삼배를 올리며 뜻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불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 “뜻 생명 안락과 행복을 위해 정진” 서원

### 종조 도의국사 다례제 봉행

조계종의 원류인 가지산문을 개창했던 조계종 조계사의 기일(음력 5월 2일)을 맞아 도의국사를 추모하는 다례제가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조계사의 국사 다례제’를 개최했다.

진제 종정예하는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국사께서는 해동에 시절 인연을 좇으시어 무위임운(無爲任運)의 조계종지를 드러내니 온 천하에 심인행기가 진동하고 진리의 본체를 해동에 이식하니 그 자비가 하늘에 닿음이라”면서 “종조께서 원력하신 선공진작과 화합원음이 사바에 가득해 인류의 평안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속성취하여 지이다”라고 설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추모사에서 “선사의 인욕행과 같이 보리심을 일으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다짐에 빛을 더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소인자들은 진력하고 있다”면서 “종단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의 시간을 만들겠다는 다짐 속에서 국민과 불자 모두 깨끗한 마음가짐, 화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하면서 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의국사 다례제는 종조의 사상을 기리는 것 외에도 종단 정체성을 확립하고 청정수행 가풍과 승풍 진작을 도모하고자한다는 의미가 크다. 이날 다례에 참가한 사부대중은 의례위원장 인묵스님의 집전으로 종사영반이 진행되는 동안 도의국사 진영에 3배를 올리며 국사의 정신을 계승해 뜻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불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 작은 섬마을도 ‘총본산성역화’ 동참

암태도 노만사 사부대중 60만원  
홀로 사는 할머니도 매달 5천원  
법문에 감동해 한마음 한뜻으로...

“많고 적음 떠나 함께 힘 모았으면”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로부터 공문을 받고 부처님 제자 된 도리로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초하루 법회 때 거룩한 불사에 함께 하자고 신도들을 독려해 기금을 모으게 됐죠.” 지난 3일 신안 암태도라는 작은 섬에 있는 노만사 주지 범도스님은 성역화 불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만사는 지역에서 가장 유서 깊은 사찰로 이름이 있지만 신도가 2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도량이다. 주지 스님과 신도들이 모은 기금은 총 60만원. 주지 범도스님은 “총본산 성역화 불사는 후세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전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성스러운 일”이라고 밝히며 “원만한 추진을 위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다같이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 지역에서 홀로 살고 있는 신 모 할머니

(82)는 매달 5000원씩 기부하고 있다. 김포 금정사에서 주지 스님으로부터 총본산 성역화 불사에 대한 안내를 받고 2015년 11월부터 정기 후원을 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신 모 할머니는 “주지 스님 권유로 친구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사실 5000원을 입금하는 것도 부담되지만, 성심성의껏 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7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성역화 불사 원만 회합을 기원하는 전국 사찰 동시 초하루 법회’에서 추진위 상임부위원장 혜총스님의 법문에 감동해 선뜻 100만원을 내놓은 불자도 있다. 허창일 씨는 “보시 공덕으로 자신과 가족, 이웃들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게 해줄 것”이라는 스님 법문에 아들과 시위의 이름으로 각각 50만원을 내놨다.

이처럼 성역화 불사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후원에 함께하려는 이들의 참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성역화 불사 추진위에 따르면 예산의 한 불자는 절에 보시하는 것도 좋지만 불사를 돕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는 사찰 주지 스님의 법문과 함께 불교신문에 게재된 사고(社告)를 보고 6만5000원을 보냈다. 현재 중국에서

체류중인 한 불자는 우연히 조계종 홈페이지를 보다가 성역화 불사 취지에 감동해 선뜻 60만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는 한국불교총회의 염원을 실현하는 대작불사이다. 오는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불사가 마무리되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이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지난해 불사 기금 마련을 위한 모연의 밤 이후 현재까지 39억4100여만원이 사부대중의 동참으로 모였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모연 : 060-700-1027
- 문자모연 : #2540-1027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장에 사찰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1 (계좌번호 22주회유지)
- 모연문의 :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 “마음의 고통 해결해주는 게 감동적 법회”

### ‘감동적 법회 위한 설법’ 주제 불광연구원 봉축 학술연찬회

“전법은 관찰·통찰로부터 시작”

법회에서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스님)이 지난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감동적 법회를 위한 설법의 구성과 내용’을 주제로 개최한 봉축학술연찬회에서는 설법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좋은 설법의 내용을 초기경전과 대승경전을 통해 살펴보고,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대승경전에 나타난 설법의 내용과 방법’을 주제로 발표한 남수영 동국대 외래교수는 <소품반야바라밀경>을 토대로 설법 내용과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남 교수는 감동적인 법회가 감성을 건드리는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실상을 깨닫게 해줘 환희유약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는 “감동이 삶의 고통을 해결해줄 수는 없다. 금방 새로운 고(苦)에 직면하면, 또 다시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이라며 “마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게 눈을 뜨게 해주는 게 감동적인 법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품반야바라밀경>에 집중해 법문 내용과 설법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소품반야바라밀경>은

수보리와 사리불의 토론을 통해 일반적인 법사의 설법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해준다”며 “토론의 내용 또한 반야바라밀을 바탕으로 무집착의 욕바라밀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효과적 메시지 전달과 정중의 물음을 위한 설법 방법론’에 대해 살펴본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전법은 관찰과 통찰로부터 시작한다. 어떤 행사장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법문을 해야 하는지 관찰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그림이나 스토리텔링, 행위, 비유 등을 활용해 4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여현경 기자 eonaldo@bulgyo.com

### 6월 ‘53선지식 구법여행’은 명법스님과 ‘무위의 공동체’로

수행자이자 미학자인 명법스님이 불교신문과 조계사불교대학총동문회가 공동 주관하는

■ 공불련 제10대 회장 김상규 감사위원 6명

53선지식 구법여행 초청법사로 나선다. 스님은 오는 24일 오후 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여덟 번째 법회에서 ‘무위의 공동체를 그리며’를 주제로 법문한다.

명법스님은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홍익대학교원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또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위원, 한국의전통산사세계문화유

산등재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달라이라마방한추진위 추진위원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미술관에 간 불교>, <미국 부처님은 몇 살입니까>, <한권으로 보는 세계불교사> 등이 있다. 53선지식 구법여행은 매월 한 차례 출·재가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해 법문이나 강연을 듣는 자리로, 오는 2019년 3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홍다영 기자

## 제8회 불교 문화상품 공모전

The 8th Buddhist Design Competition

공모부문  
불교문화관광콘텐츠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상품, 기념품(자유소재) / 판매가 10만원 미만의 상품

공모자격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에 관심있는 누구나

공모방법  
참가신청서 1부, 작품설명서 1부, 시제품 또는 판넬(A2사이즈)로 상품 디자인 제출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2016년 8월 16일 ~ 8월 20일 (우편접수는 2016년 8월 2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0 태광빌딩, 불교문화상품공모전 사무국 (우)04616

▶ www.templestay.com  
▶ blog.naver.com/buddhist-design

**수상내역 총상금 23,000,000원**

**대상 (1명)** 상장 및 상금 5,000,000원

**우수상 (2명)** 상장 및 상금 각 2,000,000원

**장려상 (3명)** 상장 및 상금 각 1,000,000원

**특선 (6명)** 상장 및 상금 각 500,000원

**입선 (20명)** 상장 및 소정의 상품

**특별상 (4명)**

- |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1명) : 상장 및 상금 2,000,000원
-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상 (1명) : 상장 및 상금 2,000,000원
- | 한국문화재단이사장상 (1명) : 상장 및 상금 2,000,000원
- | 서울시장상 (1명) : 상장 및 소정의 상품

**참가상 (참가자 전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작 기념품 증정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 불교문화상품공모전 사무국 02)2262-7176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후원·협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cdF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재단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주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불교신문

BBS 불교방송

한국방송 대표방송

BTN

designhouse